

추석 가족 추모 예배 순서

주후 2018. 9. 24 (음 8. 15) 아침

사 회 담 당 자

목	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묵도함으로 故(고) _____ 님을 추모하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	개				
찬	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통495장)	다 함	개				
기	도		가	족				
성	경	봉	독	골로새서 1:26-29	다 함	개		
추	모	의	말	씀	유일한 희망	사	회	자
찬	송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통434장)	다 함	개				
추	모	사	고인에 대한 추억과 간증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	족	대	표	
기	도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2018년도 추석 추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	개				

추모의 말씀(Message)

풍성한 계절에 추석을 맞아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대부분을 혼자 하시기 보다는 제자와 여러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정 안에서 부모, 형제자매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성장하면서 학교나 일터,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지내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공동체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26-2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기 바랍니다.

둘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통하여 믿지 않은 가족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조만간에 이곳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가족들이 가득한 모습을 그려봅니다. 복음은 직접적인 전도를 통해서도 전해지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전해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성숙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길 원하십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태초부터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웃들을 배려하며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매일 규칙적인 말씀묵상과 기도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족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재의 고난이나 어려움에 집착하여 불안하며 살 때가 많지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할 때 약속되는 결과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의지할 때 우리 가족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가족 추모 예배 순서

주후 2018. 9. 24 (음 8. 15) 아침

사 회 담 당 자

목	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묵도함으로故(고) _____ 님을 추모하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	개				
찬	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통495장)	다 함	개				
기	도		가	족				
성	경	봉	독	_____ 골로새서 1:26-29	다 함	개		
추	모	의	말	씀	_____ 유일한 희망	사	회	자
찬	송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통434장)	다 함	개				
추	모	사	_____ 고인에 대한 추억과 간증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	족	대	표	
기	도	_____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2018년도 추석 추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	개				

추모의 말씀(Message)

풍성한 계절에 추석을 맞아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정과 일터, 학교, 사회에서 여러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와 관계, 자녀 부모와 관계, 일터에서 상사나 동료와 관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유롭지 못하는데,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참된 사랑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26-2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애가 강한 존재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기 보다는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온 인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하여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며, 참된 사랑의 본질을 몸소 행하신 분이십니다. 이번 명절을 맞아 우리 온 가족이 그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며,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복음을 통해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보면 연약함과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늘 갈등을 야기하며,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이런 분이 계시면 공동체 모두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데 오늘 본문은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며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숙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항상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무언가 도우려고 힘쓰는 사람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배려하며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모두 복음으로 하나 되어 이웃을 배려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깨달으며 화목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대에 예수님만이 우리 가족의 유일한 희망이 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현재의 고난이나 어려움에 집착하며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불안함은 결국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일 때가 많은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경쟁구도 속에서 누군가를 이겨야 행복이 온다는 생각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거꾸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듯이 우리도 이웃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 다시 한 번 우리 가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며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화목메이커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